



2012

4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제328호

발행 : 김성규 / 총무 : 김용인 010-6050-3704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wing44@paran.com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며...

배종길

하늘의 도움으로 날씨가 청명한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도 주최측의 안전당부에 잘 호응하여주신 덕분에 아무런 불상사 없이 50주년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년2개월의 긴 임신기간 순조로운 출산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 오르내리기를 수 차례, 허구한 날 전화통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르다가 드디어 제주도에서 2박3일의 산고 끝에 해산은 하였는데 주위에서 아무런 뒷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옥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보멍청이는 면한 것 같아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평소에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해외 및 지방거주 동문과 가까이 있으면서 동창모임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정성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아쉬웠고, 마지막 날 늘봄식당에서 제주흑돼지를 마음껏 드시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행히 각 지역 회장단에서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125명의 친구들이 만찬장을 가득 메워 밤늦게까지 담소하고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흐뭇했습니다.. 특히 부산동문들의 감칠맛 나는 면면의 소개와 잘 어우러진 노래자랑은 단연 돋보였고, 총감독 정현경 동문이 시상하지 않았다고 버럭 화를 낼만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저녁 늦은 시각에 집에 도착하니 출산후유증으로 몸살기운이 노크하는 것 같아 동네 목욕탕에서 냉온탕을 넘나들며 지친 몸을 풀고 한잠을 자고나니 꼭두새벽부터 전국방방곡곡에서 발발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몸살을 달래며 편안히 누워있을 겨를이 없자 눈치 빠른 그놈도 싱거운지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붙잡아 되짚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다만, 이번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친구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10년 뒤 부산동문들이 주관할 졸업60주년행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제주도행시 경비

1. 금호리조트에서

숙식비	5,485,000원	객실 : 5,460,000원(105,000원 x 2일 x 26실) 이불추가 : 25,000원(5,000원 x 5개)
만찬	3,750,000원	30,000원 x 125명
둘째날조식	1,250,000원	10,000원 x 125명
소계	10,485,000원	서울 2명의 결식을 사전통보하지 못했음

2. 3일간 제주도 길바닥에서

버스대절	3,900,000원	차량 3,600,000원(400,000원 x 3대 x 3일) 기사봉사로 300,000원(100,000원 x 3일)
식대	6,284,000원	첫날점심(고등어조림) 8,000원x125명=1,000,000원 둘째날점심(해물전골)12,000원x106명=1,272,000원 ※ 결식 : 한라산등반팀 14명, 마산3명, 서울2명
		둘째날석식(갈치조림)12,000원 x 116명=1,392,000원 ※ 결식 : 마산6명, 서울3명
		마지막날조식(수정사 전복죽공양사례금) 300,000원
		마지막날중식(흑돼지) 20,000원 x 116명=2,320,000원
입장료	2,272,000원	에코랜드 8,000원 x 125명=1,000,000원
		마라도 12,000원 x 106명=1,272,000원
과일주류	1,180,000원	과일(한라봉) 3상자 x 100,000원=300,000원
		3일간의 생수대 =260,000원
		3일간의 주대 =620,000원
		※ 마지막날 늘봄식당에서의 술값은 노래방에서 거둔 210,000원을 공제하였음
기타경비	694,000원	사진인화 및 우송료 : 550,000원
		현수막(4개) : 120,000원
		상비약 1세트 : 24,000원
소계	14,330,000원	

3. 행사를 추진하면서 : 2,028,000원

회의비	552,000원	총5회
출장비	571,000원	4회
제주도현장답사비	636,000원	숙박 및 차량대절 ※ 식대와 항공료, 승선비는 참여자 부담
공로패	140,000원	2개
복사비	29,000원	
노래자랑상금	100,000원	부산팀

4. 제주도행사 경비총액 : 26,843,000원

- ※ 제주행사경비가 다소 늘어난 것은 과일, 주류 및 기타경비(사진인화)를 예측할 수 없어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임
- ※ 한라산 등반팀의 명단을 사전에 여행사에 통보하지 못해 등반당일의 중식대와 마라도입장료를 실이용자수로 조정하는데 김성규 본부회장이 많은 곤욕을 치렀음

행사경비의 지역별분담금

1. 분배기준

- 각지역 행사참석인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다만 서울팀14명 한라산등반으로 결원이 생긴 둘째날 점심과 마라도입장료만 실이용인원으로 계산함
- 행사참가인원 : 총125명

마산 58명(기타지역4명포함)	서울 41명	부산 26명
------------------	--------	--------

○ 조기귀가자 : 9명

3/25 저녁	2명	서울(안병근 이홍규)
3/26 오전	3명	마산(김준형 신용운 박장규)
3/26 오후	4명	마산(김정수 송인창 황한균) 서울(김대식)

2. 지역별 안분계산

1) 1차 계산(둘째날 점심과 마라도입장료 제외한 전 경비)

마산	11,274,000원	$((26,843,000\text{원} - 1,272,000\text{원}) \times 2) \times 58/125$
서울	7,970,000원	$24,299,000\text{원} \times 41/125$
부산	5,055,000원	$24,299,000\text{원} \times 26/125$

격려금 감사합니다

미국거주 광병열 동문께서 편지와 함께 동창회격려금으로 미화500불을 배중길 동문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편지는 지면관계로 다음에 게재하겠습니다.

2) 2차 계산(둘째날 점심과 마라도입장료)

마산	1,320,000원	(1,272,000원 x 2) x 55/106명
서울	600,000원	2,544,000원 x 25/106명
부산	624,000원	2,544,000원 x 26/106명

3. 지역별 분담금

마산	12,594,000원	11,274,000원 + 1,320,000원
서울	8,570,000원	7,970,000원 + 600,000원
부산	5,679,000원	5,055,000원 + 624,000원

4. 각지역별 정산

1) 마산

지		출		수		입	
12,594,000원	제주도행사비	10,160,000원	강동균 외 61명의 참가비				
7,802,830원	항공료	7,830,000원	김석백 외 15명의 협찬금				
1,001,500원	마산 - 김해 버스						
878,000원	행사준비 간담회비용(3회)						
504,000원	행사불참 역대회장과 협찬자 기념품대(12개)						
327,500원	마지막날 김해공항석식						
300,000원	회보편집인 상금						
23,407,830원	지출합계	17,990,000원	수입합계				
동창회기금보조		5,417,830원	23,407,830원 - 17,990,000원				

2) 서울

부담해야할 금액		입금한 금액	추가입금할 금액
8,570,000원	제주행사비	8,850,000원	370,000원
450,000원	기념품대(10개)		
200,000원	편집인상금		
9,220,000원	합계		

3) 부산

부담해야할 금액		입금한 금액	추가입금할 금액
5,679,000원	제주행사비	10,715,000원	10,000원
3,356,000원	항공료	※ 항공료가 당초 1인당 130,000원 예상했으나 유류할증료인상과 발권수수료 때문에 134,240원으로 조정되었음	
1,500,000원	만찬주대 및 밴드비		
90,000원	기념품대(2개)		
100,000원	편집인 상금		
10,725,000원	합계		

※ 조영민 부산총무님 과오납부된 575,000원을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제주행사비를

정산해 보니 다 날라가버리고 오히려 10,000원을 추가로 더 보내야 되겠소. 이해가 잘 안 되던 만원을 가지고 마산으로 오소. 비방을 알려드릴테니....

졸업50주년행사 참석자명단

마산 58명	강동균 강수성 곽영식 곽호남(포항)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동열 김명진 김박(경주)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박소학 박영환 박종근 박기일 박장규(대전) 배복기 배종길 변재국 변종일 손기홍 송인창 김방안(울산) 신용운 신창한 여경현 우용태 이대우 이무일 이복렬 이상호 이아인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창봉 정종필 제갈선광 조남규 조정웅 조종석 지해경 최건일(진주) 최광수 허순호 황한균 황희생 황의신
서울 41명	구진웅 권영집 김기철 김대식 김덕조 김복남 김영웅 김우철 김종화 김창환 김태조 김학영 문동영 박광지 박구홍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박일곤 방학기 서종성 안병근 유찬중 이고명 이상환 이영우 이홍규 임홍무 전승치 제정택 조용석 조재호 조철호 주영국 주유삼 하무정 하방근 허양도 허호 홍창우 황일웅
부산 26명	강신평 권기옥 김성광 김수용 김덕조 김준태 김지남 김호석 나길보 남원일 류취국 박영섭 박용우 박진형 박정길 윤성업 이강복 이의승 이황구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천성태 최진화 황선치 박형식

졸업50주년행사에 도움을 주신 동문

1. 전체 동문회에 찬조하신 동문

성명	찬조내역
1 안병근	기념품(보온병) 140개 기증
2 신용운	사은의 밤 경비(선물대 포함) 부담
3 박필근	사은의 밤 은사님 촌지와 모교발전기금
4 남원일	금호리조트 만찬회 주대 및 밴드비 부담
5 최정봉	고급타월 150장 기증
6 곽호남	해외동문 8명에게 기념품 전달
7 이복렬	동문의 도반 수정사 주지께서 전복죽 아침공양
8 총동창회장	금300,000원 지원
9 김남수(케나다)	금200,000원 지원(故 김용실추모행사 300,000원)

2. 지역별 협찬내역(단위 : 만원)

1) 마산

7,830,000원	강동균(30) 곽호남(100) 김석백(50) 김선규(30) 김성규(70) 김태욱(30) 김채열(30) 배종길(200) 변재국(30) 이복렬(100) 이종섭(10) 임향훈(20) 조규철(18) 조종석(30) 최길홍(30) 황의신(5) 이상 16명
------------	--

2) 서울

10,140,000원	권국주(50) 김중화(30) 김태조(50) 김학영(20) 박박중(50) 박필근(30) 안병근(500) 이석우(50) 이실(30) 이홍규(50) 조재호(50) 조철호(50) 주영국(30) 허호(100) 황일웅(50) 이상15명
-------------	---

3) 부산

6,550,000원	강신평(20) 권기욱(20) 김대균(30) 김수용(20) 김준태(20) 남원일(50) 노재석(10) 류취국(50) 박영섭(20) 박용우(20) 박청길(20) 박형식(10) 송길영(80) 윤성업(50) 이강복(5) 이의승(20) 이황구(10) 정현경(20) 조영민(30) 조창식(100) 천성태(20) 최진화(20) 황선치(10) 이상 23명
------------	---

졸업50주년행사에 소요된 실림실이 규모

제주행사비	27,843,000원	마지막날 김해공항 저녁식사 포함
항공료	18,540,000원	마부산 : 11,160,000원, 서울 : 7,380,000원
기념품	7,044,000원	안병근 6,000,000원 + 1,044,000원
	500,000원	해외거주동문 기념품
만찬	1,500,000원	주대 및 밴드봉사비
기념타월	750,000원	청주 최정봉 기증
버스대절	1,000,000원	마산-김해공항
사은의 밤	6,300,000원	사은경비 및 은사님 촌지
모교발전기금	20,000,000원	박필근 동문(일금천만원에서 천만원 추가)
합계	83,477,000원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2년 3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적요	금액
회비	500,000	김기현 변중일	210,000
		변재국 각15만원	67,530
기타	166,500	장영의 5만원	300,000
		마고총동창회 CMS지원금	
		판공비	150,000
수입계	666,500	지출계	727,530
전기이월	-146,611	차기이월	-207,641
합계	519,889	합계	519,889

졸업50주년기념여행에서 담은 사진을 편집인 블로그(<http://wing91.tistory.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 아래 '졸업50주년'을 클릭하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졸업 50주년 축하 시은 행사 및
제2회 3.15의기 김 용실, 김 영준 열사 추모의 밤

정현경

지난 3월 9일 오후 5시부터 마산 회원구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서 졸업 50주년을 맞아 은사님 초청 사은의 밤을 행사를 가졌다.

초청된 은사님은 고금석, 김승곤, 박성백, 박수용, 양재익, 정정채, 황희룡 은사님으로 모두 7분을 모셨다. 80을 훌쩍 넘기신 연륜 속에서도 50년 전의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었지만 부산에 거주하시는 정정채 은사님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시어 조영민 부산 동기회 총무가 사모님과 함께 승용차로 모셨다.

5시 15분, 호텔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 50여명의 마산 친구, 서울에서 온 허양도 박필근 친구와 부산에서 참석한 조창식 회장과 추모의 밤 행사 발기인으로 참석한 강신평, 박용우 박진형 외 6명의 친구 등 70여명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장으로 입장하시면서 제자들의 따뜻한 기립박수를 받았다.

행사의 시작은 자칭 ‘21기의 빛나는 대머리’ 라고 소개한 이종량 친구가 ‘은사님을 기리며’ 라는 자작시 한편을 읊고 진행을 이끌었다.

먼저 본부 회장인 김성규 친구가 나와 함께 자리해 주신 은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천세만세의

건강한 장수를 기원했다. 인사를 끝내면서 학창시절 ‘쌘지’의 별명답게 특유의 끼를 발동시켜 “감사합니다... 짹, 반갑습니다... 짹” 하고 몸개그(?)로 좌중을 웃음으로 유도했다. 이어서 배종길 50주년행사추진위원장은 고인이 되신 은사님들에게 추모의 정을 기리면서 제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1984년 5월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지금까지 매월 한 차례도 빠짐없이 발행되고 있는 “21기 동창회보”를 묶은 책자를 친구들과 은사님들에게 자랑하면서 김용실 추모 및 제주도 행사 추진에 대해서도 소식 전했고, 신용운과 박필근 동문의 사은의 밤 행사를 위한 협찬에 전체 친구들의 고마운 뜻을 전하기도 했다.

모교 교장의 인사와 이현석 마고총동창회장의 인사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 깜짝 이벤트로 서울의 박필근 친구가 모교발전기금으로 ‘일천만원’을 회사하여 큰 박수를 받았는데 친구의 오늘이 있기까지 자신에겐 검약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온 인생내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 행사를 끝내면서 오늘 참석하

본부동창회 제작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신 은사님들의 인사 멘트가 있었다. 고금석 은사님은 21기하면 3.15를 떠올린다 하셨고 김승곤 은사님은 함께 늙는 처지에 건강한 삶을 누리길 당부하셨고, 박성백 은사님은 28년생인 내 인생의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 용돈도 얻어간다고 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셨고, 박수용 은사님은 교사 때 무서운 얼굴로 기억했지만 나이 들면서 함께 즐기는 세상이 좋다고 하셨고, 양재인 은사님은 병역미필로 늦게 군 입대를 하여 한 학기 밖에 함께하지 못했음이 아쉬웠다했고, 정정채 은사님은 모두가 더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당부하셨고, 끝으로 황희룡 은사님은 50년 전 여러분이 불러준 ‘황소’ 별명의 인생이 그림다고 하여 친구들 모두가 4.19전후의 엄격한 학칙을 두려워했던 추억을 떠올려 보게도 했다.

사은의 밤 행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신용운 친구의 고마운 뜻을 담은 만찬으로 이어졌다. 만찬이 끝나고 친구들 모두가 인근의 3.15아트센터 소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19:30부터 김준형 친구가 기획, 연출을 한 “제2회 3.15의거 김 용실, 김 영준 열사 추모의 밤” 행사를 관람 했다. 열사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한국의 ‘살풀이 춤’ 과 스페인의 ‘플라멩코’ 전통춤으로 표현하면서 열

사들의 의로운 저항의식과 살아남은 자들의 애통을 잘 그려낸 1, 2부로 나뉘어 엮어진 무대가 경남대학교 윤복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선 ‘살풀이’ 독무로 시작하여 3.15 의거의 의미를 최초로 담은 김춘수님의 ‘베고니아꽃’ 이 낭송 되고 ‘Guajira Solo’도 연출 되었다. 또한 기획, 연출을 맡은 김준형 친구가 ‘Whispering Hope’ 를 구성지게 불러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선 시인 고은님의 ‘3.15의거 50주년에’ 시낭송으로 시작하여 창작 전통무 ‘시를 춤추다’ 산조 독무와 무반주로 플라멩코 독무를 펼쳤고 마산고 재학생 합창단과 함께 ‘마산고 교가’ 를 함께 부르는 뜻 깊은 자리를 끝으로 추모의 밤 행사를 마쳤다.

끝으로 ‘사은의 밤’ 과 ‘추모의 밤’ 행사 준비를 노심초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마산본부의 관계자 여러분과 행사 추진위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친구들이 전하는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 마산고등학교 21기의 무궁한 발전과 친구들의 돈독하고 변치 않는 우정을 기원하면서 또 다른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접어둡니다. *

2012년 4월 월례회 안내

월
모
의

월례회

일시 : 23일(월) 오후 6시30분
장소 : 기와집(243-3583)
동성동 국민은행 뒷골목



부인회

일시 : 23일(월)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055-223-6160)